

16. 조선말기의 회화(1)-추사

1.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남종화의 유행
2. 근현대화단의 대동: 오원 장승업-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 등
3. 민화의 유행

1. 추사 김정희와 남종화의 유행

金正喜(1786-1856)

-경학(史學·불교·제자백가·천문·지리·음운·산술)에 박통하고 시문·서화에 능했으며 금석·고증과 서화골동의 감식에도 뛰어난 다예다능한 박학군자였다.

-1809년 생부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연경에 가게 되어 자제군관으로 수행.

-옹방강(翁方綱, 78세), 경학·금석학·고증학·서학에 박통하여 연경 학예계 주도하고 있던 학자.

1월29일 卯時(5-7시)에 石墨書樓에서 만나 “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 휘호해주고 사제지의(師弟之義) 맺음.

-완원(阮元, 47세), 장년학자로 역시 김정희의 학식에 놀라며 사제지의를 맺음.

-이후 청초·고증·학계와 서신으로 의문점 묻고 서책·송부 등, 학예계의 정보 끊임없이 교환.

-김정희는 청초의 翁方綱과 완원으로 대표되는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문헌고증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화론 역시 미술양식의 변천을 파악하고 고증하는 학문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그는 화론을 실제 창작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

※추사 김정희의 묵란과 산수는 당시 화단의 지표가 되었다.

<不作蘭圖>, 1855년작으로 추정.

1. 애초에 달준이를 위해 아무렇게나 그렸으니 오직 한 번만 그릴 수 있는 것이지 두 번 다시 그릴 수 없는 것이다.(鄭燮의 역행법으로 씀) 吳小山이 이를 보고 얼른 빼앗아가는 것을 보니 우습도다.

放筆 문득 그려냈다. 다시는 이런 경지의 그림을 자신도 그려낼 수 없고 남도 그려낼 수 없다. 오소산이 알고 가져갔는지 모르고 가져갔는지?

2. 난화를 그리지 않은 지 20년 만에 우연히 본성의 참모습을 쳐 냈네. 문 닫고 찾으며 또 찾은 곳 이것이 유마의 不二禪이다. 어떤 사람이 억지로 요구하며 구실을 삼는다면 또한 마땅히 유마거사의 무언으로 사양하리라.

→ 유마경, 불이법문품에 있는 내용. 모든 보살이 禪悅에 들어가는 상황을 굳이 설명하는데 최후에 유마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보살들은 말과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법이라고 감탄했다는 것.

※난초의 참모습을 갖은 시련 속에 찾고 찾았던 사상적 안식처 중 하나인 유마경의 불이법에 연결; 불이법, 글과 말로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림 속 난초 또한 세상의 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경지는 선가의 득도를 거친 이후에 펼쳐질 무애의 경지인 썸이다. 이렇게 화선일치를 실현.

3. 초서와 예서, 奇字의 법으로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아보며 어찌 이를 좋아할 수 있으랴.

※화면을 유행하는 듯한 중간의 난잎은 마치 부드럽고 생동감 넘치는 초서의 획을 연상시킴. 비백(飛白)으로 처리된 잎 표현 역시 초서의 필이 떠오름. 대부분의 잎이 중간쯤에서 한두 번 꺾이는 모양은 제화시문의 글씨에서 볼 수 있는 예서의 획법과 유사하다. 당두가 표현되다가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 되는 난잎의 표현은 기자의 획을 연상시킨다.

제화시문과 난초의 모습을 볼 때 김정희는 이 작품에서 시서화선일치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불이선란>은 김정희의 영화와 슬픔이 교차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평생을 진력한 자신의 사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세한도> 1844년(59세)

- 연경의 새로운 서적과 동향을 알려주는 등 변함없는 제자의 예를 다한 이상적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서찰에 세한도를 그려줌. 이상적은 그 해 10월 <세한도>를 연경에 가져가서 청대 문사들에게 제발과 시문을 청했다. 지조의 상징인 송백(жат나무)--간일한 작품, 농축된 문기
- 배경 대담하게 생략, 표현하고자하는 지조의 상징만 간추려 요점적으로 나타냄.
- 자신과 이상적을 은유하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경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
- 유배 초반의 독필 사용은 자제하고 갈필담묵으로 대상 묘사.

《예림잡을록》

1839년 6월 자신의 문하에 있는 중인 서화가들의 글씨와 그림에 대해 평을 한 것을 전기가 기록해 두었다가 10년 뒤 유재소와 함께 책으로 꾸민 것. 그 내용이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오세창)과 『조선화론집성(朝鮮畫論集成)』(고유섭)에 수록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예가 8명과 화가 8명에 대한 평이 포함되어 있다. 서예가는 김계술(金繼述), 이형태(李亨泰), 유상(柳湘), 한응기(韓應耆), 이계옥(李啓沃), 전기(田琦), 유재소(劉在韶), 윤광석(尹光錫)이고, 화가는 김수철(金秀哲), 허련(許鍊), 이한철(李漢喆), 박인석(朴寅碩), 전기(田琦), 유숙(劉淑), 조중묵(趙重默), 유재소(劉在韶)이다.

조희룡(趙熙龍, 1789-1866)

- 여항 문인이자 서화가.
- 벽오사(碧梧社)를 결성하여 시·서·화 활동을 하였다.
- 1851년 63세에 김정희의 심복으로 지목되어 임자도로 유배
- 『호산외기』, 『석우망년록』 등 저술
- <매화서옥도>, 간송미술관
- <홍매도>, 삼성미술관

전기(田琦, 1825-1854)

- 약포 운영, 미술품 감정, 주문 중개
- 우봉 조희룡, 유재소 등과 친밀
- 1854년 <萬古祭會圖像>의 밑그림 그림
- 벽오사 참여
- <계산포무도>, 국립중앙박물관
- <매화서옥도>, 국립중앙박물관

허련(許鍊, 1803-1893)

- 전라남도 진도출신. '호남화단의 실질적 종조(宗祖)'라 일컬어진다.
- 초의선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에게 나아가 그림을 배움.
- <산수도>

김수철(金秀哲, 19세기 중반 활동)

- 인적사항이나 생애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직업화가였던 듯.

-사의적(寫意的) 남종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이 대두된 여항의 서화 수요자 취향에 부응하여 근대적 감각과 정식성을 더한 **이색적인 화풍**을 선보였던 선구적 화가.

<송계한담도>, 간송미술관

<자양화도>, 일본 민예박물관

유숙(劉淑, 1827-1873)

<화외소차도>, 국립중앙박물관

<수계도>, 개인소장

조정규(趙廷奎, 1791-?)

-도화서 화원

-어진 제작에 참여; 태조 어진모사(1837), 1846년 헌종 어진도사(1846)

-산수·인물·화조·어해(魚蟹)를 잘 그렸으며, 특히 그의 어해도는 손자 조석진에게 계승되어 조선 말기와 근대기의 화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산수도>

이한철(李漢喆, 1812-1893)

-도화서 화원,

-초상화를 잘 그림. 어진 제작에 여러 차례 참여; 헌종어진(1846), 철종어진(1852), 철종어진(1861), 고종어진(1872).

<철종어진>, 1852년

<의암관수도>, 국립중앙박물관

이하응(李昞應, 1820-1898)

-고종의 생부(生父).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에 봉해짐.

-서화에 뛰어났으며 특히 예서와 묵란에 능하여 김정희로부터 극찬을 들었다

- “석파란(石坡蘭)”이라 불릴 정도로 그의 묵란화 유명. 구도와 필묵법에서 독창적 화풍을 개척하여 격조 있는 문인화의 경지를 이룸.

<석란도>

붓을 세워 길게 빼치는 초서(草書)의 장별법(長撇法)을 사용함으로써 이하응 특유의 묵란화 풍 완성.

민영익(閔泳翊, 1860-1914)

-민비의 친정조카로 20대에 이미 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함.

-1883년 친선사절 보빙사(報聘使)의 정사로 미국을 방문하고, 대통령 아서(Arthur, C.A.)를 만남.

-1885년 경부터 주로 중국에서 생활함.(상해)

<목죽도>

운미난

신명연(申命衍, 1809-1886)

-부친 신위의 지도 하에 시와 그림을 익히면서 성장.

-다양한 소재와 감각적인 색상이 돋보이는 채색 화조화를 그렸다.

<연꽃>, 국립중앙박물관

남계우(南啓宇, 1811-1890)

-사대부 화가이나 실직(實職)을 지낸 적은 없음.

-나비 그림으로 유명하였다. 나비를 잡아 유리그릇에 가두어 놓고 기르면서 나비의 생태 연구. 날아다니는 나비 쫓아다니면서 나비의 형태, 날개의 움직임, 색깔 주시했다고 함.

-나비는 부귀 장수를 상징하여 많은 수요 있었음. 특히 나비 접(蝶, dié)자는 80세 노인을 뜻하는 질(耋, diè)자와 중국어로 음이 같아 축수도로 제작.

<꽃과 나비>

홍세섭(洪世燮, 1832-1884)

-영의정 지낸 홍서봉의 후손.

-영모화에서 독특한 감각의 구도와 묵법을 구사

<유압도(遊鴨圖)>

정학교(丁鶴喬, 1832-1914)

-여항문인이자 서화가.

-정학교의 괴석도는 문인풍의 담백하면서도 간결한 필치와 입체감이 돋보이는 담채풍의 개성적인 화풍을 특징으로 하였다. 특히 심하게 변형된 추상적 형태의 괴석을 잘 그려 '정괴석(丁怪石)'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괴석난죽도>, 국립중앙박물관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유홍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